

정유, 수익악화 엄살 너무 심했다!

1/4분기 영업실적 영업이익 상당 ... 전자·자동차는 예상외로 부진

국내기업들은 2007년 1/4분기에 국내외의 급격한 환경변화 영향으로 영업실적이 희비쌍곡선을 그린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계에 따르면, 전자와 자동차는 가격 하락과 노사문제 등으로 1/4분기 영업실적이 하락세를 보인 반면, 조선을 비롯해 정유, 철강, 유통업은 악재가 사라지면서 영업실적 향상이 두드러졌다.

전자와 자동차는 고전을 면치 못했다.

삼성전자는 1/4분기에 반도체와 LCD(Liquid Crystal Display) 판매단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4년만에 최악의 영업실적을 기록했다.

1/4분기 매출은 14조3900억원으로 2006년 4/4분기에 비해 8%, 영업이익은 1조1800억원으로 42%, 순이익은 1조6000억원으로 32% 감소했다.

특히, 영업이익은 2003년 2/4분기에 1조1610억원을 기록한 이후 4년 만에 최저수준으로 떨어져 시장에서 추정한 평균치 1조3936억원에도 크게 미치지 못했다.

LG전자는 2006년 4/4분기에 매출이 3/4분기 대비 8.8% 감소한 5조5205억원, 영업적자 434억원 등으로 초라한 실적을 올렸다.

판매가격 하락으로 극심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LG필립스LCD는 1/4분기 매출액 2조7220억원, 영업손실 2080억원을 기록하며 2006년 4/4분기에 비해서는 개선됐지만 역시 부진을 면치 못했다.

현대자동차는 1/4분기에 내수 14만2849대, 수출 46만9198대 등 61만2047대를 판매하는데 그쳐 전년동기대비 1.4% 감소했다.

국내 증권사들은 현대자동차의 1/4분기 매출액을 6조8098억원, 영업이익은 3198억원으로 영업이익률이 5%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으나 실체는 4.7%에 불과했다.

1월 연말 성과급 추가지급과 관련한 가동 차질, 국내공장의 생산차중 재배치에 따른 생산차질 등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조선은 선가가 낮았던 시기에 수주했던 물량을 대부분 소진하고 고선가 수주물량을 건조함에 따라 경영실적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대우조선은 2006년 1/4분기에 1415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으나 2007년 1/4분기에는 영업이익이 392억원으로 흑자로 전환되고 매출액도 1조5361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9.7%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삼성중공업은 영업이익 972억원으로 519.1% 급증하고 매출액은 1조8282억원으로 24.5%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며, 현대중공업은 매출액이 3조4677억원으로 21.8%, 영업이익은 3393억원으로 102.1% 늘어나며 영업이익률이 9.8%로 빅3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정유는 1/4분기 영업실적이 양호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2006년 1/4분기에 정제마진 축소 등으로 크게 고전했기 때문에 상대적인 호조로 평가되고 있으나 예상을 뛰어넘어 호조로 전환될지 주목되고 있다.

SK는 매출이 10%, 영업이익은 35%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2006년 1/4분기에는 매출 5조2777억원, 영업이익 3300억원을 기록했다.

SK는 석유제품 소비가 급격히 위축되지 않으면 2007년 영업환경이 양호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브라질 광구 등 신규유전 개발 수익 등을 감안할 때 영업이익이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GS칼텍스도 정제마진 개선과 석유화학제품 영업호조에 힘입어 매출이 2006년 4조3464억원에서 4조5500억원으로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1396억원에서 2000억원을 약간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4/16>